

SK하이닉스 시스템IC, 中 국영기업에 매각

우시 파운드리 지분 49.9% 4780억원에 매각 체결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자회사인 시스템IC가 중국 국영기업인 우시산업발전그룹(WIDG)에 우시법인 지분 49.9%를 3억 4930만 달러(4780억원)에 넘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파운드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9일 봉황망과기(凤凰网科技)가 전했다.

감독 관리 문건 및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시스템IC는 최근 WIDG에 우시 파운드리 지분 21.3%를 1억 4930만 달러(204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WIDG는 2억 달러(273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 28.6% 지분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거래는 올해 10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시스템IC는 지난 2017년 하이닉스가 설립한 완전 자회사로 현재 우시 파운드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우시 파운드리 지분은 SK하이닉스 시스템IC와 WIDG가 각각 50.1%, 49.9%씩 보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7월 중국 우시 공장 건설을 위해 WIDG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미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시스템IC 우시 파운드리에는 2018년 지어진 뒤 8인치 웨이퍼에서 28나노미터 이상의 기본 칩을 생산하고 있다. 성숙, 전통 칩으로 불리는 이 칩은 자동차 전원 관리 시스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D(DDI), 사물인터넷 장비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파운드리 업계가 현재 치열한 첨단 공정 경쟁 속에 있는 가운데 성숙 반도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판매량에서 여전히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자 기업과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최근 세계 주요 성숙 반도체 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다.

글로벌 산업 조사 기관 IBS는 중국의 수요 폭증으로 오는 2030년 세계 28나노미터 이상의 성숙 반도체 시장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281억 달러(38조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SK하이닉스 시스템IC가 중국 기업에 파운드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중국 업체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성숙 반도체 열풍에 대응해 중국 파운드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韓 해외공관 5곳 테러 경보 상향

선양 총영사관 포함

재중국 선양대한민국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5개 해외 공관이 북측 테러 위협을 대비해 테러 경보를 상향했다고 지난 3일 왕이(王毅)에서 보도했다. 지난 2일 한국 외교부는 해외 5개 외교기관에 대해 북한이 위협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테러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번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한 한국의 해외 공관은 캄보디아, 라오스와 베트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보 당국에서는 현재 북한이 중국, 동남아, 중동 등지에 위치한 한국 외교공관 직원 및 교민들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확인했고, 북한에서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원을 파견, 현지에서 한국의 외교 활동을 감시하고 테러 공격 목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해외 공관 직원 등 엘리트 요원들의 이직이 늘고 있는 것이 북한에서 테러를 시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했다. 최근 외교직, 무역, 유학생 등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던 북한인들이 북한으로 귀환되는 일이 많았다. 이런 현상이 북한의 관련 부처에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고, 보복성 테러를 시도해 북한 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라는 게 한국 정보기관의 설명이다.

중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테러 공격에 대한 경보를 3단계인 경계까지 상향한 것은 테러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과 교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중 한국학교 교사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 달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들,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 “파견교사 수당은 학교와 협의해 적법 산정”

중국의 한 사립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지난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중국의 한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선발돼 2018~2021년 근무했다. 이 기간 이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국가에서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한국학교에서 받았는데, 이런 보수 체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 수당을 정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재량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교육부 장관이 한국학교와 협의해 적법하게 선발계획을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이렇게 정해진 수당과 근무조건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해 선발됐다”며 “만약 공고 내용과 달리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⑤



2024년 가을학기 상해교통대학 외국인 유학생 오프라인 어학연수 모집내용

450원 원서접수비 무료

오프라인 수업	장기어학연수 프로그램	한학기 주부반(오전반) (기초반, 중급반)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파트 타임제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기	가을학기: 2024년 9/18 ~ 2025년 1/10 2025년 봄학기: 2025년 2/17 ~ 6/13	가을학기: 2024년 9/18 ~ 2025년 1/10 2025년 봄학기: 2025년 2/17 ~ 6/13	4주 : 7월 1일 ~ 7월 26일	가을학기: 2024년 9/19 ~ 2025년 1/10 2025년 봄학기: 2025년 2/18 ~ 6/13
신청기간	2024년 가을학기: 2024년 3/15 ~ 6/20 2025년 봄학기: 2024년 9/18 ~ 12/31	2024년 가을학기: 2024년 3/15 ~ 6/20 2025년 봄학기: 2024년 9/18 ~ 12/31	3월 1일 ~ 5월 20일	2024년 가을학기: 2024년 3/15 ~ 6/20 2025년 봄학기: 2024년 9/18 ~ 12/20
학습기간	월~금요일 반나절 수업 4교시/30분 휴식 오전: 8:20~11:40 오후: 12:55 ~ 16:25	월 ~ 금요일 9:00 ~ 12:00 (10분 휴식)	월 ~ 금요일 오전수업: 8:20 ~ 11:40	화요일, 목요일: 저녁내 18:30 ~ 21:05
원서접수비	원서접수비: 인민폐 450원, 원서접수시 광고지 업데이트 하면 원서접수비 무료.			
등록금	한학기: 인민폐 10,500 원 1년: 인민폐 21,000원 ※신체과목, 문화체험 포함, 여형 별도	한학기: 인민폐 10,500 원 1년: 인민폐 21,000원 ※신체과목, 문화체험 무료, 여형은 별도	인민폐 5,000원	비즈니스 중국어: 인민폐 8,100원/학기 종합 중국어: 인민폐 6,900원/학기

온라인 신청: applychinese.sjtu.edu.cn iso@sjtu.edu.cn +0086 21 6282 0638

주소: 上海交通大学人文学院国际化办公室(教学一楼 105A室) 中国上海华山路 1954号(或番禺路 655号)

